



# 낙원의 경이

by **Bishop Earthquake Kelly**  
어스퀘익 켈리 감독 목사

Interviewed on [Manifest](#) by Perry Stone jr.

대담자: 페리 스톤 (manifest TV 프로그램 진행자) [www.DivineRevelations.info/KOREAN](http://www.DivineRevelations.info/KOREAN)



----- 대담자: 페리 스톤-----

여러분이나 혹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아거나, 8, 9, 10세 된 자녀나, 10대 청소년이 된 자녀가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유산된 아기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그 아기들의 영과 혼은 존재할까요? 어떤 이들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한 아기의 몸으로 형성되기까지 단순히 한 덩어리의 세포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 저는 Manifest TV 프로그램에서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해 시리즈로 엮어 보내 드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하였고 낙원을 보았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몸에서 나와 낙원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은 감독이신 어스퀘익 커티스 켈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복싱 선수였을 때 펀치가 너무 강하여 어스퀘익 (지진) 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보신다면 복싱 선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분이 제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여러 해 동안 도시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며, 마약 상인들, 마약 중독자들, 창녀들을 위해 사역을 해 오셨지요. 가난 한 자들 중에 가장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자들을 위해 일하셨지요. 미국에서 갱으로 가장 험악한 왓츠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은 1998년 12월 7일에 차 강도들의 총에 맞아 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겪은 슬픔으로 인해 뇌 동맥에 종양이 생기게 되고 살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 12월이지요. 병원으로 실려 가셨을 때 말할 수 없는 통증과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것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어스퀘익 켈리 목사-----

제가 병원에 당도하였을 때, 곧 바로 검사실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제가 뇌동맥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두통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요. 의사들이 제게 약을 주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고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대 제 몸은 밖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심장 마비와 같이 저의 가슴이 부서질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을 쉬어 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사와 아내가 저를 도와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 동안 저는 제 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이 아래로 떨어져서 끔찍한 구덩이로 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섬겨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래로 내려 가면서 모든 고향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지점에서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네게 온 세상에 나 없이 죽은 자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듣고 보기를 원한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너는 다시 살아 날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돌아 왔으며, 저를 저의 몸 안으로 들여 보내셨습니다. 의사들이 저의 호흡을 돌리게 하려고 노력 중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살아 있어요!” 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가 드디어 중단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의 영혼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려고 해 보았으나,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 있다고 계속 말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못하고 포기한 채 모든 의료 장비들을 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네 눈을 떠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한 여자 의사가, “의식이 돌아 왔군요. 우리는 당신을 잃어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중환자실의 다른 방으로 급속히 옮겨 다시 저의 몸에 의료기기를 다시 연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대담자: 페리 스톤 -----

며칠 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 어스퀘익 켈리 목사 -----

저는 병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몸에는 굉장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저의 머리 위에 얼음 주머니를 두 봉지나 올려 놓았습니다. 저의 혈압은 매우 높았고, 담당 간호사들은 15분 마다 제가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들어 왔을 때, 저는 “ 기독교 방송으로 채널 좋은 것 하나로 돌려 주실래요? 전부 총만 쏘는 범죄 영화는 보고 싶지 않군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여기 저기 채널을 돌리다가 적당한 것을 찾지 못하여 나는, “ 그냥 불을 끄고 문을 닫아 주세요 ”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가 방을 나가서 문은 닫았을 때, 나는 크고 금 빛나며 아름다운 둥근 것이 제 병실 안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쳐다 보고 있는 동안, 그것은 나의 침대 발치에 머물렀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감싸서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 너무나 아름다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 하고 말하였습니다.

----- 대담자 -----

목사님은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기록한 바와 같이 영혼이 자신의 몸에서 나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스퀘익 켈리 목사 -----

예, 저는 제 몸이라는 껍데기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저의 몸을 바라 보고 있었는데, 알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와, 저 남자의 몸은 형편없군, 아마 살 지 못할 것 같애 ”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의 몸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 크고 금 빛나는 존재가 나를 데리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너무나 커서 남자 10명이 손을 잡고 둘러서야 할 만큼 큰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잔디 하나 하나마다 다이아몬드, 보석, 에머럴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골프 코스보다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 대담자 -----

그 위로 걸으셨습니까?

-----어스퀘익 켈리 목사-----

제 키는 6 ½ 피트 (198cm) 정도인데요, 7 피트 (213 cm) 정도의 키로 보이는 천사가 제게 “가서 걸어 보라” 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에메랄드 잎 사이로 걷는다면 제 발이 베여서 상처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제게, “괜찮다, 걸어 봐.” 라고 해서 걸어보니 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대답자-----

놀랍군요! 목사님께서서는 생명의 강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스퀘익 켈리 목사-----

예, 제가 계속 걸어 가는 도중에 한 강을 보았습니다. 그 강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답자-----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어스퀘익 켈리 목사-----

예, 음악이 들려 왔습니다.

-----대답자-----

물이 음악에 따라 흐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스퀘익 켈리 목사-----

액체로 녹은 다이아몬드처럼 여러 가지 무지개 빛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우 황홀하여 제 주머니에 몇 개를 넣고 싶었습니다. 마시고도 싶었고, 헤엄치고도 싶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요, 거기서는 수영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너무 보기에 너무 흥분되어 “사람들 모두가 이 광경을 봐야 돼.” 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이 강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어떤 건물에서 흘러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건너편에 있는 제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답자-----

차 강도에게 당하였던 아들 말씀이시군요. 전과 같아 보였습니까?

-----어스퀘익 목사-----

제 아들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야, 스캇”라고 소리쳤는데, 그 아이도 제게, “아빠, 아빠” 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네가 스캇이 맞니?” 라고 하니, 그도 “예, 아빠. 이곳은 아빠나 엄마가 제게 말해주셨던 것 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캇, 내가 네게로 건너 살 수 있니?” 라고 하니, 제 아들은 “안돼요, 아빠. 지금은 안돼요. 아빠는 다시 돌아 가야 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야, 배가 어디 있지? 여기 분명히 배가 있을꺼야” 라고 말했지요.

-----대담자-----

목사님은 아들이 있는 강 건너 편으로 가기만을 원하셨군요.

-----어스퀘익 목사-----

예,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안아 보고 싶을 따름이었습니다.

-----대담자-----

그 동안 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들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군요. 오히려 아들이 더욱 좋아 보였다고요. 그도 자기 이름을 알고 있었고, 또한 목사님도 자신이 그의 아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까.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어스퀘익 목사-----

예, 아들은 제게, “아빠, 제게 한 약속을 기억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같이 복싱을 하였습니다. 저는 복싱 선수이므로 아들은 제게 세계 칠 수 있으나, 저는 언제나 살살 치거나 가볍게 건드리기만 하며 같이 복싱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부엌에서 또 복싱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멈추더니 저를 세계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가 죽기 전 날이었지요. 그는, “아빠, 제게 약속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너무 세계 끌어 안아 제가 숨을 잘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 일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뇨, 아빠. 제게 약속해 주세요. 아빠와 엄마가 마약 중독자들과 갱단 에게 전도하고 도와 주는 일을 절대 그만 두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빠가 약속하지 않으면,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래, 그래, 아들아” 라고 말했지요. 그러니 아들은 팔을 풀어 주었는데, 제가 “너 괜찮니?” 라고 묻자, 아들은 “예, 괜찮아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네바다 주에 부흥회를 위해 설교를 가려고 하였는데, 제 일생에서 최악의 전화 통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아들이 차 강도에게 가슴에 총을 맞았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를 낙원에서 다시 보다니, 정말이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는 내게, “아빠는 그 일을 계속하셔야 해요. 아빠는 일을 다 마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실 수 없어요. 아빠는 그 일을 끝내셔야 해요. 아빠가 끝까지 하겠다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 가셔서 그 일을 마치셔야 해요.”

-----대담자-----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보셨습니까?

-----어스퀘익 켈리 목사-----

예, 이미 돌아 가셨던 제가 알던 목사님들이 역시 강 건너 편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게, “목사님은 이곳에 오실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답자-----

만약 감독님께서 그 강을 건너다면 다시 돌아 오지 못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스퀘의 켈리 목사-----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을 건너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던 것입니다.

-----대답자-----

이제 어린이를 보게 되셨는데요,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이야기는 제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스퀘의 켈리 감독-----

저는 다른 곳에서 어린 아이들이 뛰어 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놀며 재미있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끼여서 놀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이 너무 재있게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제가 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도 그런 자녀 중의 하나이다.” 저는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놀고 있던 아이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룹의 아이들은 전쟁이나 사고나, 암에 의해 숨진 아이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종과 모든 나라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저기 있는 아이들은 유산되어 내게 다시 보내진 아이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울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신 그분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답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다시 돌려 보내었군요.

-----어스퀘의 켈리 목사-----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은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비밀리에 유산을 하여 다시 돌려 보내진 아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답자-----

그렇군요.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 따라 그룹으로 되어 있군요. 목사님께서 저와 이야기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두 가지 경고를 보내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목사님께서 말 그대로 주님 앞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앞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두 가지 경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스퀘익 켈리 목사-----

첫 번째 경고는 “내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내게 대해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입니다.

다음은 “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은 자인 것처럼 내게 대적하고 원망을 품고 있다. 내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역자들처럼 자신의 사역에도 빠른 성과를 축복하지 않았다고 나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병자를 위해 기도하였는데도 죽었다는 것 때문에 원망한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원망을 마음에 붙잡고 있다. 그들이 내게 대한 그 원망을 놓고 나를 용서하기 전에는 내가 그들의 앞을 축복할 수 없다.

-----대답자-----

저도 몇 년 전에 “하나님을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때에,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 그들은 내게 원망하며 분노한다. 그들은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원망하며 분노한다.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용서하고 놓으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 라고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사역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의 마음도 심란하였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어스퀘익 켈리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끊임없이 경고를 거듭 거듭 보내고 계십니다. 그들은 한 아내를 가졌으나, 많은 애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게 하시기를 수 많은 경고를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얼굴을 구하는 대신 돈과 물질을 좇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경고를 계속하여 보내셨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였으므로, **그들 중 많은 수가 그들의 강단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강단은 하나님의 강단이 아니라 그들 자신 마음대로 말 한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답자-----

목사님이 다시 돌아 오신 이후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스퀘익 목사-----

예, 저는 이에 해당하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고, 매우 위선적인 삶을 살았으며, 악한 삶을 살았으나 여전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목자라고 자처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단에서 죽었으며, 둘 다 39세 였습니다.

-----대답자-----

정말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강단에서 돌아 가신 목사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돌아 가신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거듭 경고하시는데요. 제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미국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테러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서는 모르고 계시겠지만, 저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레리아 사람인데 자신은 진실한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만일 ROE vs. WADE (대법원에서 통과된 낙태 보장 법안)가 미국에서 취소되지 않으면, 만일 그들이 그런 일을 그치고 어린 아기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국 전체를 강타할 정말 심각한 심판이 일어나 미래에 형체도 알아 보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어스퀘익 켈리 목사-----

하나님은 이 나라 (미국)에 다가 올 붕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크나큰 파도가 강타할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때가 카트리나 사건 바로 전이었습니다.

-----대답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목사님께 보이셨군요.

-----어스퀘익 켈리 목사-----

하나님은 테러단이 이 나라에 이미 들어 와 있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대답자-----

목사님은 그들의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여자 한 사람과 남자 네 명이 지하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크나 큰 공격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 큰 공격이 될 것이므로 사람들이 심지어 파악하기도 불가능할 크고 큰 공격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이 프로그램에서 카터와 타미 베이츠 형제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카터 형제의 아내는 21분간 죽어 40년 전에 트럭에 의해 차가 전복되어 죽었던 자신의 아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켈리 목사님은 뇌종양으로 인해 병원에 계실 때, 어떤 마차가 와서 자신을 태우고 즉시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 중에서는 “그런 일이 어떤 의미가 있어?” 라고 질문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세 썩어 하늘에 이끌려 낙원에 들어 가서, 사람이 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우리에게 돌아 와 설명할 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9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테네시의 차타누가에 계시는 모리스 롤링스 박사님을 아시지요? 그 분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몇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역자 주: 레이건 대통령의 주치의) 심폐 소생 방식을 통해 숨이 멎었던 사람들을 다시 소생시켰는데, 그들이 몸에서 나와 지옥에 갔거나, 천국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의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그들은 수술 도중에 그들의 몸에서 나온 사람들이나, 사고 후에 몸에서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 혼, 육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의 혼이 잠자고 있다고 믿으며, 어떤 이들은 영과 혼이 몸 안에서 거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불을 통과하고 정결하게 되면 다시 나온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낙원에 대해 이런 모든 의문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도록 하셨습니다. 감독님, 낙원을 보고 거기에 계셨던 경험으로 인해서 삶이나 미래를 대하는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 지셨습니까?

-----어스퀘의 켈리 목사-----

네,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진지하고도 심각히 받아 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주의하거나 태만하여 그 심각성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매일 이 곳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지 자신을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저의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 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혼들에게 이것이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경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대담자-----

목사님은 간증이 실린 책을 쓰셨습니다. 저는 뇌종양에 대해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기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목사님께 얼굴을 찡그리기만 하여도 죽을 것이라고 까지 말하였지요.

-----어스퀘의 켈리 목사-----

저의 아내는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찡그리지 마세요, 찡그리면 죽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들은 제가 곧 죽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담자-----

저의 친구 중의 한 사람은 제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꼭 들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사님을 만났을 때부터 저는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즉각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실제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경험이 있었음을 알 것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지요. 감독님,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Website: [www.EarthquakeKelleyMinistries.org](http://www.EarthquakeKelleyMinistries.org)

E-mail: [eqkelley@msn.com](mailto:eqkelley@msn.com)

번역: 이 명주 (myongkim77@gmail.com)